

### “세제·금융 규제 대폭 완화 지방 부동산 경기 살려달라”

광주상의, 靑·총리실·국회 등에 건의문

광주상공회의소는 26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최근 8.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및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발표된 대책의 대부분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차 또 파업... 피해 ‘눈덩이’

## 광주공장, 27~29일 3일 연속 부분파업 들어가 두달새 8차례 ... 6,500대 생산차질·880억 손실

기아차 노동조합이 지난 14일에 이어 27~29일 3일간 연속 부분파업에 불을 당겨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로 18번째 되풀이되고 있는 기아차 파업은 지난달 2일 이후 두달여 가까이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 주택 구입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상향 조정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 후 매각시 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동통세 인하 ▲민간택지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기아차 노조가 향후 3일 연속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광주공장을 비롯한 기아차의 파업손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달 2일부터 5차례 56시간(잔업포함)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은 3천600여대, 매출손실은 490여억원에 달했다. 기아차 전체는 생산차질 1만여대, 매출손실 1천300

여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3일동안 부분파업이 더해지면 모두 8차례 88시간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은 6천500여대, 매출손실은 88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아차 전체는 2만여대, 2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250여명에 달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 손실

은 15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직접손실 외에 대외 신용도 하락은 물론 오는 9월1일부터 가동하기로 한 ‘쏘울(SOUL)’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포트리지·카렌스에 이어 광주공장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쏘울’은 오는 9월30일 신차발표를 거쳐 연간 10만대 이상 생산돼 국내외에 시판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카렌스 라인에서 혼류생산하기로 한 ‘쏘울’ 역시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산일정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기아차 파업이 이처럼 장기화 조짐

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연속 2교대제”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축이 노사간 쟁점으로 부딪쳐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 ▲기본급 13만4천690원(8.9%) 인상 ▲매달 통상급의 300%를 생계비 부족분으로 지급 ▲휴가비·유류비·명절 선물비 등 90만원 인상 ▲상여금 80% 지급 ▲매년 사업계획과 신차 개발계획, 월별 판매전락 등을 노조측에 통보 ▲‘쏘렌토’ 후속모델 북미공장 생산금지 ▲장년 2년 연장 ▲휴가일수 증가 ▲노동사용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사측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상장기업 상반기 순익 65% ↓

12월 결산법인 23개사  
총매출 사상 최대 불구  
재무건전성 크게 악화

올 상반기 광주·전남 상장사들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순이익은 1년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실속없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 상장사는 원자재값 급등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상장사들은 상반기 순이익이 362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순익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천333억원)보다 64.9%(671억원)나 급감한 것으로, 업체들의 수익성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 상장사의 수익성이 추락한 것은 원유가격 급등 속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역 상장사들의 상반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7.04%에 그쳤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1천원여치의 물건을 팔 경우 70.4원밖에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별로는 금호산업이 297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을 비롯, ▲광주신세계(150억원) ▲셀러(116억원) ▲화천기공(94억원) ▲조선내화(78억원) 등 16개사가 흑자를 실현했다. 반면 금호타이어와 C&중공업, 폴리플러스 등 7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 포르테 1호차 행운 (사진 왼쪽)가 차지했다.

기아차는 26일 서울 압구정사옥에서 ‘포르테’ 1호차 전달 기념식을 갖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포르테 1호차는 서울지역 회사원 합기법씨(기아차 제공)

## 나주 혁신도시 한전KPS 연수센터 건립

2012년까지 ... 협약 체결

나주시와 한전KPS는 26일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한전KPS의 종합연수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2012년까지 한전KPS 연수센터를 혁신도시 인근의 부지 16만5천여㎡에 만들고 연수 시설 및 체육 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설계 현상공모는 2009년, 착공은 2010

년 말로 예정됐다. 한전KPS 연수센터 건립에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9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한전KPS의 연수센터 건립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연수원과 연관 기업의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이자 혁신도시의 순항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100억원 규모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보 호남영업본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이진서)는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부터 35세의 창업자로, 창업 1년 이내인 광주, 전남·북 소재 중소기업이다. 자금은 개별 및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

설자금 등으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생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계획이다. 단 사채, 향락, 부동산업 등 비효율 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문의 1588-6565.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에셋플러스 무료 투자설명회

증권가 ‘마이디스 손’ 강방천씨 직접 강연  
27일 여수청소년수련관 · 28일 DJ센터서

최근 펀드 직접판매 통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회장 강방천)이 광주·전남에서 무료 투자설명회를 연다. 26일 에셋플러스에 따르면 지방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여수 청소년수련관(27일)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28일)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여수 등 전국 11개 도시에 걸쳐 진행되며, 강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 회장은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IMF 당시 종자돈 1억원으로 1년10개월 만에 156억원의 수익을 올린 증권가의

‘마이디스 손’으로 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읽는 독특한 해석 및 투자 방식 등이 소개된다. 박신배 에셋플러스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 고객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며 “에셋플러스의 투자원칙과 운용철학 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참가는 에셋플러스 홈페이지(www.assetplus.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당일 입장(선착순)도 가능하다. 문의 1544-7878.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angjun-eunyeon' (창jun연연)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 Includes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several smaller text boxes with property information.